

소득분배 개선...고소득 자영업자 하락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작년 지니계수·5분위분배율 모두 개선

2대 분배조사 '가계동향조사'와 정반대..."사업소득 감소 반영돼"

지니계수·5분위분배율·상대적 빈곤율 등 지난해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상대적빈곤율이 2018년 모두 개선됐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45로 전년 0.354보다 0.009포인트(p)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 소득5분위분배율은 6.54배로 전년 6.96배보다 0.42배p 떨어졌다.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 17.3%보다 0.6%p 떨어졌다.

소득 5분위분배율은 상위 20%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간 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지니계수를 비롯해 세 지표 모두 숫자가 떨어질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한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5분위분배율의 경우 2015~2017년까지 6.91→6.98→6.96으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에 6.54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같은 소득분배지표 결과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또 다른 분배지표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의 경우, 2018년 1~4분기 모두 5분위분배율이 전년보다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4분기만 보면 가계동향조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

위배율은 2018년 2015~2018년 4.37~4.63~4.61로 완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5.47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등 소수성 정책이 되레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18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고소득 자영업층의 몰락이 조금 더 빨리 반영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소득을 보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18년에는 저소득 가구에서만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오다가 2019년에야 고소득 가구가 어려워지는 점이 조사에 잡히기 시작한다"며 "그래서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분배지표가 2018년에 어려워졌다가 2019년에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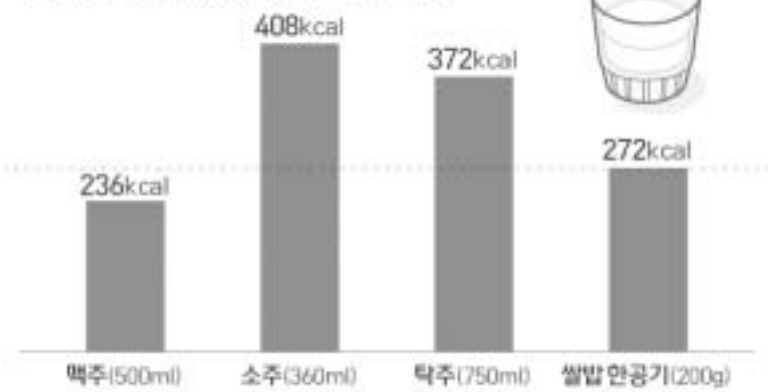
이와 달리 고소득층 사업소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이 2018년 조사부터 잡힌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감소가 더 빠르게 포착된 것이고 함께 보면 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소득 구성을 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사업소득이 전년비 11.7%나 감소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 전년비 8% 감소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11.4% 증가해 분위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고소득층 자영업 소득 감소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 효과가 나타난 것이 분배지표 개선의 두가지 원인이었던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로 보안을 하다보니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좀 더 조사에 잘 잡혔고 (정부지원금이 조사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 비교



“소주 1병=밥 1.5공기 아시나요?”

주류 95%, 칼로리 표시 안 한다

애주가인 김모씨는 월요일 저녁부터 반주를 즐겼다. 그가 전날 마신 술은 소주 2병에 맥주 2캔. 밥은 딱 한 공기만 먹었다. 김씨가 섭취한 열량은 얼마일까. 정답은 1560칼로리(kcal)다. 저녁 식사로 밥 5.7공기를 흡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무려 59.4% 많은 나라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소주·탁주 중에서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주류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소주인 '처음처럼' (404.5kcal)과 '참이슬' (408kcal)을 1병 마시면 밥 한 공기 반을 먹는 것과 같은 열량을 섭취한다. 유명 막걸리 브랜드인 '장수생막걸리'도 병당 열량이 밥 한 공기(272kcal)보다 111kcal 높다. 하지만 제품당 열량을 표시하는 주류는 밥보다 열량이 낮은 하이네켄(232kcal) 단 한 제품이었다.

◇밥 한 공기 272kcal...소주 1.5배, 탁주 100kcal 높아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소주·탁주 20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가 408kcal로 가장 높았고 맥주가 236kcal

로 가장 낮았다. 탁주의 병당 평균 열량은 372kcal로 조사됐다.

◇영양 표시한 주류는 하이네켄뿐...영양표시 의무화해야

일부 맥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류가 밥 한 공기보다 높은 열량을 나타냈지만,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제품은 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7년 6월 공고한 '주류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1개 제품뿐이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와 별개로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하나로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수입맥주 10개 제품은 열량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이 2017년부터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류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에도 주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부동산대책 비웃듯 30세 미만 빚내서 집사다...부채 23.4% 증가

30세 미만 가구 자산 11.1% ↑...자가 및 전월세 늘어



30세 미만 가구의 평균 부채가 1년새 23%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산보유액은 11%로 늘어 빚을 내 주택 등 자산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부동산투기에 뛰어들어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2017년 7668만원보다 242만원(3.2%)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가율 2.7%를 웃도는 수준이다.

부채는 금융부채가 72.8%를 차지했으며, 임대보증금이 27.2%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30세 미만의 부채가 급증했다.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부채는 3197만원으로 2018년 2591만원보다 606만원(23.4%) 증가했다. 이는 30대 10.2%보다 13.2%p 높은 수준이자,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매입을 위해 대출 등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0세 미만 가구의 56.3%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금융부채액은 5480만원으로 집계됐

다. 30세 미만의 금융부채 보유가 구도 6.4%p 늘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늘어난 만큼 30세 미만 가구의 자산 보유도 증가했다. 올해 30세 미만 가구의 자산보유액은 1억994만원으로 2018년 9892만원보다 1102만원(11.1%) 늘었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이다.

30세 미만의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이 3884만원으로 58.6%를 차지했으며, 거주주택 비중이 2522만원으로 실물자산의 57.8% 비중을 나타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자산증가와 맞물리는 현상"이라며 "30세 미만 가구의 자가 및 전세 비중이 9.3%p 증가했다. 자산 증가한 것에 따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